

“무주군, 산불 대응 절실” 무주군, 국가 예산 확보 최선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원, 산불예방·진화 위해 신속 대응체계 구비 강조



이해양 의원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원이 올해 봄철 발생한 대형산불을 계기로 산불 예방과 대응체계 개선 필요성이 중요해졌다고 무주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해양 의원은 27일 열린 제31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한 대응체계 개선 제안」 5분 발언을 통해 산불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다양한 개선책을 제안했다.

이해양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산

불 발생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봄철 무주군의 산불피해 면적은 20.53ha로 지난해보다 20배 이상 증가해 산림보호대책의 시급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부남면 대소리에서 발생한 산불을 막지 못했다면 마을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이해양 의원은 “무주군은 백두대간 지대에 있어 험준한 산악지형이 많고 낙엽층이 두꺼워 산불 발생시 인력 접근이 어려운 특수한 지역이다. 그래서 산불진화헬기 운용과 전문 진화인력 출동 등 신속 대응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며 무주군이 산림청, 정부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주군의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위해 △군민

대상 연중 산불 예방 및 홍보 강화와 산불 진화를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 발굴 △산불감시원 및 산불진화대 교육과 실습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임도가 산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무주군의 체계적 임도 대응전략 마련 △산불 확산 저지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과 간벌 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해양 의원은 “산불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무주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것은 행정의 책무이자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산불예방을 위한 무주군의 적극행정과 군민의 동참을 호소하고 5분 발언을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황인홍 군수, 기획재정부 찾아 주요 사업 필요성·당위성 설명



황인홍 무주군수

무주군이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27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찾았다. 이날 방문은 황인홍 무주군수가 직접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건립 사업’ 등 무주군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예산총괄과를 비롯해 문화예산과, 기후환경예산과 등 무주군 중점사업 예산심사 부서를 차례로 방문해 담당 심의관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태권도종합수련센터) 건립(총사업비 국비 450억 원), △덕유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건

립 사업(국비 187억 원), △무주군 폐기물매립시설 확장 사업(3단계)(국비 49억 원), △설천면, 부남면 병목지점 화전교차로 사업(3개 사업, 총 23억 원) 등 핵심 현안 사업들의 국가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사업별 주안점과 추진 타당성을 공유하며 국가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부처별 검토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 없이 노력하고 있다”라며 “중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재부 단계 대응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국회 단계까지도 설득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귀농·귀촌인 실태 설문조사 실시

무주군이 귀농·귀촌인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 그리고 맞춤형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오는 6월 13일까지 (사)무주군귀농귀촌협회의 협조를 받아 귀농·귀촌인의 정착 실태와 생활 만족도, 지역사회 통합 수준 등을 파악하는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소속 회원 471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을 통해 무주군은 지역 내에 정착한 귀농·귀촌인들의 실제 생활 경험과 지역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 통계화한다.

설문 세부 항목은 △귀농·귀촌 배경 및 정착 기간, △주거 및 농업활동 현황, △지역사회와의 관계 만족도,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등으로 결과는 정책 수립 및 지원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방침이다.

김성욱 무주군청 인구활력과장은 “이번 조사는 무주에 정착한 귀농·귀촌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적인 과정”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귀농·귀촌 지원사업 설계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마이산 북부 먹거리 콘텐츠’ 품평회 개최

마이산 몽블랑·고기호떡 등 미식관광 전략형 식음 콘텐츠 발굴

진안군은 27일 전주시에 위치한 진안로컬푸드 호성점 앞 광장에서 ‘마이산 북부 먹거리 콘텐츠 개발 용역’을 통해 개발된 신메뉴 5종에 대한 품평회를 개최했다.

이번 품평회는 마이산 북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전략형 먹거리 콘텐츠의 개발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을 대표할 미식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개된 메뉴는 △고기호떡(중국식 패이스트리 스타일), △패지국밥, △마이산 꽃감 식혜 크러쉬, △흑미파르페, △마이산 몽블랑(계절별 구성: 봄-숙 인절미, 여름-요거트 북송아, 가을-딸자, 겨울-딸기) 등 총 5종이다.

메뉴들은 진안 고원지대의 청정 자



연에서 생산된 고기, 꽃감, 딸기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개발됐으며 맛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매력까지 갖춰 관광객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는 것이 특징이다.

현장에서는 시식 행사를 통해 주민

들을 대상으로 관능 평가와 맛, 기호도 등 전반적인 품질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군은 수집된 피드백을 레시피 보완과 메뉴 완성도 향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먹거리 개발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마이산 북부 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진안군은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간담회, 매장 컨설팅 등을 실시하며 관광지 먹거리 현황을 진단하고, 최신 식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콘텐츠 발굴에 힘써왔다.

군은 이번 품평회 결과를 토대로 신메뉴의 조리법 기술이전을 실시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해당 메뉴들이 지역 상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5년 연속 수상

진안군이 5년 연속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지난 23일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25년 지방세 연찬회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김호진 주무관이 발표한 ‘가상자산 파생상품에 대한 채납정수 과제’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 주무관은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상자산 및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채납 정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표로 주목을 받았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채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로 평가됐다.

진안군은 이로써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이어가며, 지방세 행정 역량과 연구 능력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2025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진안군은 지방세 징수율, 세수추계 정확도 등에서 탁월한 운영 실적을 인정받아 군부 대상에 선정되며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경사도 맞았다.

군은 앞서 지방세입 분야에서 2024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2025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3대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해 상반기에만 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성과도 달성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일자리 업무협약 체결

장수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27일 전북특별자치도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를 비롯해 장수로컬푸드센터, 장수농촌융복합산업지원사업단과 함께 상호 협력적 연계를 통해 농어촌 활력 제고를 목표로 일자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수군 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인의 일자리 창출과 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도시민 및 귀농귀촌인 대상 농촌일자리 창출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수군 내 농업·농촌 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협업 △농어촌 일 경험(실습)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협력체계 구축 △기관 간 효율적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농촌유학협의회 열고 운영 방안 논의

진안군은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진안군 농촌유학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진안군의 농촌유학 지원 정책과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안군 농촌유학협의회는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위원장인 부군수를 비롯해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 등 총 11

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회의에서는 2025년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계획과 거주시설 운영지침에 대해 심의했으며 진안군 농촌유학 현황에 대한 설명과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의 운영·관리 방안에 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진안군은 현재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맛보기캠프, 농촌유학 특화프로그램 운영, 학교별 특화프로그램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재학생과 유학생이 함께 모여 농촌 유학에 대한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유학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부귀면에는 농촌유학 가족을 위한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을 진행중이며, 오는 하반기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총 18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이 시설은 부귀초등학교의 활성화와 농촌유학 기구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곡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